

현대성우메탈 천막농성을 마치며



현대성우메탈지회가 2018년 4월 8일 일방적인 강제전환배치에 맞서 천막농성에 돌입한지 124일만에 농성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성우메탈 사측의 강제전환배치는 노조파괴로 규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대성우메탈 사측은 불법파견과 법정 노동주52시간 준수 등으로 교대제 개편이 필요했고 생산설비 외주화, 추가 인건비 절약을 바탕으로 하는 교대제개편에 반대할 금속노조 현대성우메탈지회의 파괴와 무력화가 필요했으리라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부, 지회를 중심으로 강고한 투쟁을 전개하였고 소수노조라는 약점을 연대투쟁으로 극복하면서 조직 축소라는 아픔은 있었지만 카톡, 문자로 행하는 비인간적인 전환배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노조라면 조금 더 유리한 지형에서 투쟁을 전개할 수 있었고 더 나은 합의문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소수노조라는 상황에서 투쟁을 하였고 소수노조이기에 합의서가 아닌 약속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사측으로부터 문서로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투쟁에서 가장 소중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첫째, 강제전환배치를 거부한 3명의 간부동지들의 임금을 사측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임금을 무기로 금속노조 지회를 압박하고, 금속조합원을 임금노예로 전락시켜 사측의 의도를 관철시키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회조합원은 특별조합비를 거출하여 생활임금에는 부족하지만 간부3명의 임금을 보존해 줌으로써 사측이 의도했던 임금을 무기로 한 임금노

예 전술을 저지시키는 성과를 남겼습니다.

둘째, 현대성우메탈 사측이 금속지회와 대화를 하면서 노동현장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복수노조 악법의 한계는 있지만 금속노조 현대성우메탈지회를 상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연대투쟁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소수노조로서 연대투쟁이 없었다면 현재까지 투쟁을 이어올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복수노조 시대에 연대투쟁이 중요한 투쟁전술이라는 인식을 일깨워 준 투쟁이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성우메탈 조합원동지들의 내면에 잠재해 있던 투쟁성을 일깨웠다고 봅니다. 이는 현대성우메탈 서울본사 투쟁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소중한 추억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모든 동지들이 최선을 다하였고 멋진 동지들을 확보할 수 있었던 투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부 확대간부동지들, 7월 20일(금) 현대성우메탈 서울본사 결의대회에 지부 파업으로 함께 했던 조합원동지들, 누구보다 마음고생이 심했을 현대성우메탈 3명의 간부동지들, 현대성우메탈 조합원 동지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잔불처리를 확실히 하고자 현대성우메탈 사측이 문서로 약속했던 부분, 지회와 대화중에 했던 말들을 어겼을 경우 “현대성우메탈 회장 자택 향의 피켓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의에 주신 지부 운영위원회 동지들, 수고하셨습니다. 현대성우메탈에 민주노조가 우뚝 설수 있도록 투쟁하겠습니다.

단결하는 노동자 패배하지 않습니다. 투쟁!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장 김정태